

데스크 시각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



김미은 문화부장

요즘 경남지역 문화계가 시끄럽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문화단체 통폐합을 선언해서다. 경남도는 시 출연기관인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3곳을 묶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하고, 16일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남 문화단체 통폐합

경남 민예총 등 지역 문화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예산 절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강행, 미래 성장동력이라 불리는 문화 예술과 콘텐츠 분야 발전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은펜칼럼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회장

며칠 전 아기를 안고 센터를 방문한 여성 지적장애인 A씨. 지적장애부모의 가정내에서 적절한 부모 역할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가솔한 A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아기가 몇 달 전 태어났으나 아직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결핍하면 모녀를 향해 소리지르며 나가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나가고 싶지만 당장 갈 데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져 생활시설 경험이 전부라고 하는 남상지적장애인 B

기고

성공적 귀농을 위한 원칙



이근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부행장보

요즘 가끔 주변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은퇴 후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지”라는 말을 종종 건넌다. 할 일이 없으면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귀농을 선택한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무작정 고향의 향수에만 젖어서 귀농을 결정하다 보니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어 안타깝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과정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농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골마을에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

는 등 귀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빈집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을 정도로 농촌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사)귀농, 귀촌진흥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전국 8개 대도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귀촌, 귀농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자 중 51.6%가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 농촌을 더욱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각 유관 기관 등도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택임대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협도 농장 알선과 영농기술상담 등 종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선지자체는 귀농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밭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귀농가구가 1만 1220가구로 급증하면서 농업, 농촌을 이끌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귀농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귀농에 성공하는 비율

은 30% 정도라 한다. 즉 상당수 귀농자가 실패를 경험하고 매년 5,6%가 재차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내용을 조언 한다. 첫째는 전문기관(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최소한 몇 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먼저 귀농한 이들의 농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경험담을 경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처음부터 집을 크게 짓거나 큰 돈을 들여 농지와 농기계를 장만하지 말고 빈 집과 농지를 빌려 소박하게 시작해보는 것이다. 농기계의 경우 농협농기계은행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셋째는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농촌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개인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웃 사귀기가 귀농, 귀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는 가족 간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

해 열었던 세계아리랑축전 평가회 자리가 떠올랐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시장이 저물 때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하면 그걸 안 받아들일 아랫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자신이라도 그런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해줘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자스민 광주’ 역시 시장의 ‘의견’에 휘둘러 작품이 제 갈길을 잃어 버렸다.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공연 행사인 세계아리랑축전이 행어 시장의 입김에 좌우될까 우려하는 게 진짜 기우였으면 싶다. 시는 예산 운용과 집행은 엄격히 하되,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문화재단 역시 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철저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문화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는 자부심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도 광주문화재단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에서 무용론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경남 문화재단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mekim@kwangju.co.kr

시장의 지나친 간섭 경계

며칠 전 광주시가 올해 세계아리랑축전의 추진위원장과 주제공연 예술감독, 축전 예술감독을 발표했다. 김명곤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두 광주 예술인들이 중책을 맡았다. 비싼 개런티를 주고 영입한 외부 전문가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광주 예술인들이 스스로 고민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려진 방침인 듯하다. 이 소식을 접하자 광주시장 주재로 지난

社說

‘국론 분열’ 박승춘 보훈처장 퇴출 시켜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2월 말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된 그는 5공(共) 범법인사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을 확보하고,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처장은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역임한 군 수뇌부의 일원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2011년과 2012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처장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 출신으로 5·18 광주유혈진압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자, 비자금 조성이던 연루됐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에서 사과까지 해야 했다. 그는 특히 2011년 9월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독립을 부각시키면 박정희도 친일파가 되고,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가 된다”면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박 처장의 지금까지 반민주적 처신과 역사인식으로 볼 때 국가의 보훈을 담당하는 보훈처장으로서 합당 미달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문제 삼아 소모적 논쟁과 국론을 분열시킨 그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에 누를 끼치는 박 처장을 단장 퇴출시켜야 한다. 박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반민주적 인사를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건 순국선열과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할 건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패가망신은 물론,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건수는 광주 9685건, 전남 9954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자 중에는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중교통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라 한 사람에게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지난해 이들이 낸 돈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아무리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해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는 관망겠지’ 하는

불감증이 주된 요인이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에 걸린 운전자만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지금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취중 실수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요즘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 영업도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기피하고 음주운전자 중에는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중교통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라 한 사람에게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지난해 이들이 낸 돈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아무리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해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는 관망겠지’ 하는

無 等 鼓

모르는 여성 앞에서 갑자기 웃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 보이는 ‘바바리맨’은 말 그대로 혐오의 대상이다. 타인의 감정에까지 여건은 도외시한 채 혼자만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눈 뜨고도 못 볼’ 비정상적인 행태를 연출해 보이기 때문이다. 요즘에야 워낙 많이 등장해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유교가 국시(國是)였던 조선시대에도 ‘선비 바바리맨’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기록에 나온다.

바바리맨



세종 20년 8월 1일 삼군관 생원 최한경과 정신석이 화교 근처 개천에서 떡을 감던 중 옛된 부인 한 명이 여중 둘과 함께 평복 차림으로 길을 걷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더위에 이성이 마비되어서였을까, 아니면 갑작스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일까, 흠뻑 땀은 최한경이 갑자기 부인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정신석도 반항하는 여중들을 때려 쫓아버린 뒤 함께 부인을 희롱하다

성군관 속직실로 도망쳐버렸다. 곧바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인 생원들은 단지 희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성폭행은 무거운 범죄여서, 범인에겐 이유를 막론하고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絞刑)이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사대부와 관련되어서인지,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최한경은 곤장 40대, 정신석은 곤장 40대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바바리맨’ 가운데 최고위 인사로 공식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하지만, 기록은 향차림으로 길을 걷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더위에 이성이 마비되어서였을까, 아니면 갑작스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일까, 흠뻑 땀은 최한경이 갑자기 부인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정신석도 반항하는 여중들을 때려 쫓아버린 뒤 함께 부인을 희롱하다

서구 백석산 시민쉼터 곳곳에 담배불 흔적 ‘창피’

서구 백석산에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 금주성이란 이름의 팔각정이 있다.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조용히 쉬고 싶거나, 산책을 하다가 잠시 둘러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최근 그곳을 찾아가보고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다. 금주성 바다의 부분 부분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져 있는 것 아닌가. 찬찬히 살펴보니 불이 시작된 곳은 대개

바닥 목재 간의 틈새, 바다와 난간이 이어지는 구석진 곳이었다. 즉 ‘발화 물질’이 틈새에 떨어져 그 열기로 주변이 쉽게 타들어 간 것이다. 근처에 떨어져 있는 담배꽂조들이 그 ‘발화 물질’이 무엇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맑고 선선한 바람에 산과 나무가 보이는 풍경, 간간히 지저귀는 산새 소리, 조용히 앉아 흡연하기 딱 좋은(?) 공간이다. 하지

만 될 공간을 제공하는 고마운 장소인 만큼 뒤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흡연 후 담배꽂조를 여기저기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재로 만들어진 바닥에 불길기 남아있는 궂초를 방치해 공공의 휴식처에 상처를 남기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근래 금연건물이 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간접 흡연의 건강상 폐해가 이유이기도 하나, 일부 흡연자의 자각 없는 행동과 매너 없는 뒤처리 역시 큰 이유가 되었다. 개인 취향이므로 흡연 그 자체를 죄악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이

의 취향도 존중함으로 흡연자의 품위를 지켜려 노력해 보는 어떨까? 그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 시설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물론 지금도 수고하고 있음을 알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작은 흐트러짐에서 보다 큰 무질서가 발생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증명하는 사례로 우리네 휴식 공간이 추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중·광주시 서구 마름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泓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600)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00-66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